영화 어게인
오디션 대본(엄마, 간호사역)

각본 장혜경
연출 홍성창
제작 ㈜크리허브

#4 설이 집 거실 (설이 회상)
와장창! 살림살이가 바닥을 데굴데굴 구른다. 엄마의 비명 소리!
한쪽 바닥에 입술이 찢어진 채 쓰러져 있는 설이. 엄마 달려와 설이를 온몸으로 감싼다.

엄마 (누군가를 향해) 애를 왜 때려! 차라리 날 때려, 날!!!
설이 (엄마의 품속에서도 서글프다,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은 흐른다.
남자가 엄마를 때리는지 퍽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강한 진동이 연달아
느껴진다. 왜,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. 내가 맞는 것도 싫었지만 나
대신 엄마가 맞는 것도 싫다. 더는 참을 수 없다)

#11 놀이터 낮 (설이 회상)
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는 어린 설이. 누군가의 주먹이 설이 머리를 가차 없이 쥐어 박는다.
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둘러쌓여 있는 설이, 다급히 어떻게든 저항하려 하지만 역부족이다.

엄마 (달려오며) 설이야! 니네 뭐야! 애를 왜 괴롭혀!

덩치 큰 괴롭히던 아이들, 설이 엄마가 뛰어오자 두려워 달아난다.
엄마, 설이를 와락 감싸 안고.

엄마 괜찮아, 설이야. 괜찮아. 엄마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. 어디 안 다쳤니?
설이 (설움 복받쳐 더 크게 울며) 엄마아!!
엄마 그래, 엄마야, 엄마. 괜찮아. 이제 괜찮아....(이마에 호~ 하면...)
설이 흑흑...(겨우 마음을 진정하며) 쟤들이...쟤들이 아무 이유 없이
설이를...(흑, 흑..)설이를... 미워해...(우왕 하고 크게 울음을 터뜨린다.)
엄마 (달래고 얼레며 과장되게) 아유...저 못 된 것들이 아주 혼쭐이 날라고,
이렇게 예쁜 우리 설이를 미워해~ 설이가 착하고 예뻐서 시샘하는 거야~
한 번만 더 우리 설이 괴롭히면 엄마가 아주 혼~내 줄게.
엄마한테 다 말해. 우리 설이는 엄마한테 꼭 붙어 있어요오~
(세상 자상하게 웃어주는 사랑스런 설이 엄마)

#1.프롤로그 / 병원 몽타주 /

의사 아이큐는 보통이고 암기력은 평범한 편입니다.
수영모 (수화로) 애가 건망증이 심해서요.
의사 (뇌 모형을 만지며) 따님의 경우. 보통사람들에
비해 시신경을 담당하는 후두엽이 발달해 있습니다.
사람의 뇌라는 게 워낙 신비한 영역이라 어느 한 부분이 좋아지면
다른 부분은 상대적으로 무뎌지죠.
사회복지사 (수화로 통역하고)
의사의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 창밖을 보는 수영.
창문 밖으로 노란 나비가 앉았다가 날아간다. 창문 밖에서 보이는 어린 수영의 얼굴.